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3.25. ~ 3.31.)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출 36 - 레 3	요 15 - 21
	개인	잠 12 - 18	엡 5 - 골 1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2) - 오직 믿음(3)		
	<p>롬 3장 27절</p> <p>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p>		



에베소서 5장 / 빛의 자녀**개 요**

- 1-14 하나님을 본받는 자
 15-21 그리스도를 경외함
 22-33 결혼의 비밀

성도의 삶은 사랑 받는 자녀 같이 사는 삶입니다(1절). 자녀다운 모습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1-4절). 이들은 불순종의 아들과 구별됩니다(5-7절).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10-14절). 그 삶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15-21절). 그런 삶을 가리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18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의 첫 번째 예는 부부 관계에서의 사랑으로의 섬김입니다(22-33절). 부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의 신비를 드러냅니다(32절).

성도의 삶을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씀합니다. 또한 그 삶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삶임을 밝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권위 아래서 서로 섬기는 삶,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삶이 거룩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 그러한 빛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 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 믿음의 싸움**개요**

- 1-4 부모와 자녀
- 5-9 상전과 종
- 10-20 주님의 능력으로
- 21-24 인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기는 삶에 대한 예시가 이어집니다(엡 5:21). 먼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다음으로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 의 질서를 따라 살 것을 권면합니다(1-9절). 이와 같은 삶은 믿음의 싸움으로써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10-20절). 즉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하면서 마음에 위로가 될 두기고를 보내는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을 선언합니다(21-24절).

성도의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 즉 그 권위 아래서 정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능력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질서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타락한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 본성으로 살아야 하기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무장해야 할 무기와 방어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부당하고 억압된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주님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3월 27일(수)

출38

요17

잠14

빌1

빌립보서 1장 /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개요

1-11 인사와 기도

12-30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지역의 교회에 편지합니다(1,2절). 먼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전하는데,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를 향한 기쁨으로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이를 것을 기도합니다(3-11절).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그 일에 정진하는데, 오히려 그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12-18절). 그에게는 삶과 죽음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19-21절). 또한 그의 매임을 복음으로 재정의하면서 자신과 같은 싸움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격려합니다(22-30절).

바울은 생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그는 담대하게 삶과 죽음보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목적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구원 받은 자이기에 사느냐 죽느냐 보다 어떻게 살고 죽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면 죽음도 유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담대함과 소망이 삶을 송두리채 바꾸어 버립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이름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로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2장 / 예수님의 마음**개요**

1-11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12-18 구원을 이루라

19-30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둔 교회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1-11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나 사람으로 낮아지신 겸손과 순종의 삶입니다. 교회가 품어야 할 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구원 받은 자로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12-14절). 그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15-18절).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를 소개하며 그와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19-24절).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며 빌립보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25-30절).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 마음을 품은 사람 중 하나로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두 사람 모두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사람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들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까?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나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겸손과 수고를 감당할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3월 29일(금)

출40

요19

잠16

빌3

빌립보서 3장 / 하늘 시민권자

개요

1-16 부름의 상

17-21 하늘에 있는 시민권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할례파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1-3절). 하지만 주님의 교회야말로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행한 할례파입니다(3절). 바울은 본래 유대인으로서 자랑으로 삼을 신분과 열심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랐습니다(4-9절). 바울은 자신과 함께 부름의 상을 따라 달려가자고 권면합니다(10-16절). 왜 그렇게 행하자고 권면합니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17-21절).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 더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세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서있는 자리에서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민권을 얻을 사람이 아니라 시민권을 얻은 사람, 즉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에 합당한 부름의 상을 쫓아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지금부터!

3월 30일(토)

레1

요20

잠17

빌4

빌립보서 4장 / 주 안에 서라

개요

1-9 주 안에 서라

10-20 자족의 은혜

21-23 문안 인사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 서는 삶입니다(1절). 그 구체적인 모습은, 첫째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2,3절). 둘째로,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기뻐하는 삶입니다(4-7절). 셋째로, 경건한 삶입니다(8,9절). 바울이 주 안에서 살면서 느끼는 바는 기쁨입니다(10-20절). 때로는 비천에,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지만 바울에겐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사합니다(21-23절).

주 안에 서라. 그 안에 모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바울을 풍족하게 합니다. 모든 것은 주 안에 있음으로 파생된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가 채우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마음이 풍족하였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결과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 권면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생각을 가득채워야 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주 안에 서는 나와 교회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1장 / 그리스도와 교회**개요**

1-14 인사와 기도

15-23 그리스도와 교회

24-29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합니다(1,2절). 그는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합니다(3-8절). 또한 채움을 받고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며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9-12절).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13,14절).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십니다(15-17절). 또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18-20절).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을 위해 힘쓰는 일꾼입니다(21-23절). 그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수고하는데, 그 말씀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웁니다(24-29절).

바울의 수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수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바울의 수고와 같은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는 자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감투보다 고귀한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은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순모임

전도

대안적 도시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2:42-47)

1. 초대교회는 어떻게 함께 배웠나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교제와 봉사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42절)

2.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전도했는지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46절)

답1.

교회는 교인들을 공동체에서 훈련시키고 교육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받았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기에 힘썼다(오늘날 이 가르침은 성경에 있다). 사도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났다(43절). 사도들의 가르침은 기적에 의해 검증되고 확인되었다. 기적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히 2:3,4).

그들은 교제하기에 “힘썼다”. 교제와 봉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열심히 수고했다. 그들은 시간을 내서 지속적으로 함께 모였다. ‘날마다’(46절). 모든 자원을 공유했다(44,45절).

답2.

초대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이고(“집에서 떡을 떼며”), 또 대그룹으로도 모였다(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46절).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새로운 신자들이 날라다 늘어났다(47절). 그들의 증거는 공동체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에 기초하고 있었다(47절). 이 말은 초대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교회 중심으로 전도했다.

팀 켈러의 핵심 메시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5:14)

산 위에 있는 동네의 의미가 무엇이며, 대안적 도시의 역할을 찾아보자.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볼 수 있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알아보자. 우리 삶의 빛으로 천국 도시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통일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대가 어떻게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것이 대안적 도시, 산 위의 동네이다.

예수님은 산 위의 동네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인간 사회의 대안적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일, 성, 관계, 예술, 갈등 해소 등 모든 것에 있어서 말이다. 오는 시대를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 주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변화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공동체가 동네 구석구석마다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 즉 새로운 공동체 개척이 중요하다. 당신의 교회가 새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격려하지 않겠는가? 새 교회를 재정과 출석으로 돕지 않겠는가?

3. 교회는 어떤 사명을 맡고 있나요?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5:20-21)

답3.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실 것이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며, 타락한 본성과 이기심을 이기게 하신다. 하지만 타락한 본성은 마지막 때까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급한 해결'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내심을 가지고, 퇴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급함을 버려야 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실수와 악은 그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완전히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를 가혹하게 비판해서는 안 되며, 발견된 실수나 단점을 보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성급하게 옮겨다니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릴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나 그날까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이기심, 학대, 테러 및 억압은 계속될 것이다. 정치에 대한 환상이나 유토피아적 꿈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온전한 회복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장차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하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산 위의 동네'가 되어,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람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으로 사는 자로서 살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주시옵소서.